연기인생 55년만에 세계의 별이 된 윤여정

1 김기영 감독의 '화녀'(1971년) ·시체스영화제 여우주연상
2 김기영 감독의 '충녀'(1972년)
3 이재용 감독의 '여배우들'(2009년)
4 임상수 감독의 '하녀'(2010년)·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5 임상수 감독의 '돈의 맛'(2012년)·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6 송해성 감독의 '고령화가족'(2013년)
7 이재용 감독의 '죽여주는 여자'(2016년)·베를린 국제영화제 초청
8 김용훈 감독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2020년)

"늙은 나를 건드리는 진심의 이야기 원해"

1971년 '화녀'로 스크린에 새바람
조영남과 미국행…13년만에 이혼
두 아들 홀로 키우며 영화판 복귀
많은작품 통해 독특한 캐릭터 구축
"감독이 중요한 걸 60 넘어 알았다
민폐가 안될 때까지 열심히 할 것"

"먹고 살려고 연기했다. 이젠 사치스럽게 살기로 했다."

삶은 척박해서 절실해져야 했다. 이혼 뒤 자신에게 남겨진 두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기 위해 더욱 그랬다. 무엇이든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척척하게 물기어린 토양 위에서 끈질기게 자라나는 미나리처럼. 그런 끝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는 무대에 나섰고, 황금빛 트로피에 비치는 자신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55년의 연기 인생이 빚어낸 거침없음은 본래의 것이기도 했다.

● "웬만해선 타협 안되는 역할을 원한다"

윤여정은 1966년 TBC 공채 탤런트로 나서며 허스키한 목소리와 똑 부러지는 강한 개성으로 안방극장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 1970년 MBC가 그를 '스카우트'하며 논란을 일으킬 정도였다. "신세대 젊은 여성의 톡톡 튀는 이미지"(영화전공자 이호걸)로 카메라 앞에 선 그는 1971년 김기영 감독의 '화녀'로 스크린 주역이 됐다. 강렬한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았지만 여전히 이미지와 실제가 뒤섞인 모습이었다. 26일 아카데미 수상 기자회견에서 "김 감독을 만난 21살 때 남들이 천재라 부르는 그를 난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다"고 말한 바이다.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고 "근본적인 여성의 매력, 순종이나 미적인 감각을 벗어난 성격배우로서, 특히 웬만해선 타협이 잘 안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역"(1971년 3월11일자 조선일보)을 원한다고 그는 답했다.

그리고 드라마 '장희빈'으로 향했다. 한국드라마 사상 가장 강렬한 캐릭터로 각인된 첫 번째 장희빈이었다. 명망 높은 극단 산울림을 무대로 연극에도 나섰던 그는 1973년 12월 약혼자였던 가수 조영남을 따라 미국으로 향했다. 영화 '미나리' 속 캐릭터들처럼 생면부지의 땅 플로리다 피터즈버그에서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시급 2.75달러를 받고 슈퍼마켓에서 일했다"(LA타임스 인터뷰)는 그는 1984년 귀국한 뒤 3년 뒤 이혼했다.

● 독특한 캐릭터와 다름을 아는 생의 조화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40대 여성이 남편의 배신으로 신산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1990년 연극 '위기의 여자'에 나선 뒤 이렇게 말했다.

"다시 태어나면 누구를 사랑할 뿐이지, 결코 간섭하거나 무엇을 요구하지 않겠다. 일생을 걸고 만나서 자식 낳고 살다 헤어지는 건 끔찍한 일이다.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던 날을 후회하지 않는다."(1990년 12월14일자 동아일보)

그만큼 인생에 대한 책임감은 더해갔다. 두 아들을 홀로 키워내며 다시 카메라 앞에서 크고 작은 몸짓의 연기를 펼쳤다. 2000년대 충무로는 그를 다시 호출했다. 임상수 감독의 '바람난 여자'를 시작으로 '하녀' '돈의 맛', 이재용 감독의 '여배우들'과 '죽여주는 여자' 등으로, 젊거나 늙거나 윤여정은 본래의 이미지를 그대로 드러내며 독특한 캐릭터를 구축했다. '고령화가족' '장수상회' '그것만이 내 세상' 등으로는 모성애로 관객의 가슴을 위로했다. 미국생활로 얻은 영어 소통 능력은 2015년 라나·릴리 워쇼스키 자매 감독의 미국드라마 '센스8'과 최근 촬영을 마친 미국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의 드라마 '파친코'의 주연 자리를 차지하게 했다.

영화 '미나리'는 그 정점이다. 윤여정은 26일 "영화는 감독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나이 60이 넘어 알았다"면서 "김기영 감독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다. 정말 죄송하다. 늙어서 만난 정이삭 감독은 모두를 존중한다. 희망을 봤다. 내가 감사를 모르지 않았나. 김 감독에게 주지 못한 감사를 정 감독에게 한다. 이제야 감사를 안 것 같다. 여전히 철이 안 든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좋으면. 사치스럽게 살기로 결심했다. 늙은 나를 건드리는 진심의 이야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겸손과 자신감, 삶의 보람과 회한이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여전히 무대에 나설 그는 "대사 외우는 게 힘든데 열심히 한다. 민폐 끼치는 건 싫으니까 민폐 안 될 때까지 이 일을 하다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거침없이 솔직해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그는 젊은 세대에게도 '윤며들다'(윤여정에게 스며들다), '휴먼여정체' 등 신조어를 안기며 "스타 배우는 틀리다. 오래하는 사람이 대단하다"며 배우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1 64년만에 亞 배우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윤여정이 쓴 기록들

2 美 아카데미 역대 3번째 고령 수상
3 영어 아닌 대사로 수상 6번째 주역
4 英 아카데미선 74세 최고령 수상도

1947년생으로 올해 74세인 윤여정은 12일(이하 한국시간) 한국은 물론 아시아 배우 처음으로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거머쥐었다. 영국 아카데미상 역대 수상자 중 가장 많은 나이로 트로피를 품에 안은 배우가 됐다. 뒤이어 윤여정은 26일 한국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아카데미)까지 받으며 다양한 '진기록'을 남겨 또 다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 봉준호 감독의 감독·각본상 등 4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1909년 '의리적 구토' 이후 시작된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를 다시 썼다. 하지만 미국영화 '미나리'의 윤여정은 한국배우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것은 물론 실제 수상이라는 새로운 성과를 이뤘다. 또 이를 포함해 모두 42개의 다양한 영화제 및 영화상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간직하는 명성을 품었다.

그는 또 아시아권 배우로는 64년 만에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1957년 일본 출신 우메키 미요시가 '사요나라'로 오스카 트로피를 받아 안은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아시아 출신 여우조연상 후보로 지명된 것은 다섯 번째이다.

지난해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로 아카데미 90여년의 역사를 뒤바꾼 데 이어 윤여정은 영어가 아닌 대사로 연기해 상을 받은 여섯 번째 주역으로 꼽힌다. 남녀주·조연을 모두 포함한 기록이기도 하다. 1961년 '두 여인'의 이탈리아 출신 소피아 로렌을 시작으로,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역시 이탈리아어로 연기한 로베르토 베니니, 프랑스어 대사로 열연한 2008년 '라비앙 로즈'의 마리옹 코띠아르 등이 앞섰다.

윤여정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역대 세 번째 고령자 수상으로도 이름을 남기게 됐다. 1950년 '하비'의 조지핀 헐이 당시 74세로 여우조연상을 받아 윤여정과 '역사적 동갑내기 수상'의 앞줄에 서 있다. 1984년 '인도로 가는 길'의 페기 애슈크로프트가 77세의 나이로 각각 상을 품었다. '더 파더'로 올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거머쥔 앤서니 홉킨스는 역대 최고령 연기상 수상자로 기록됐다.

윤여수 기자

'화녀'에서 다큐까지 윤여정 콘텐츠 봇물

극장·방송가 영화인생 재조명

5월부터 CGV서 데뷔작 '화녀' 재개봉
광화문 씨네큐브 윤여정작품 5편 상영
KBS 1TV선 윤여정 스토리 다큐 편성

방송가와 극장가도 윤여정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을 축하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극장가는 윤여정의 대표작을 다시 내건다. 방송가도 윤여정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등 특집프로그램을 앞 다퉈 편성한다.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CJ CGV는 5월 1일부터 전국 CGV의 시그니처K 상영관에서 윤여정의 스크린 데뷔작인 1971년작 '화녀'를 50년 만에 다시 선보인다. '윤여정 배우의 시작과 현재' 기획전의 일환이다.

윤여정이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수상 소감에서 "저의 첫 감독"이라고 언급한 고 김기영 감독이 연출했다. '화녀'에서 윤여정은 주인집 남자의 아이를 낙태한 가정부 명자 역을 맡아 파격적인 연기를 펼쳤다. 이를 통해 그해 대종상 신인상,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은 물론 스페인 시체스국제판타스틱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서울 광화문 씨네큐브 역시 28일까지 '하녀'와 '죽여주는 여자' 등 윤여정의 작품 5편을 상영 중이다. 한국영상자료원도 5월7일 서울 마포구 시네마테크KOFA에서 '윤여정 특별전:도전의 여정을 걷다'의 막을 연다. 김기영 감독의 '충녀'를 비롯해 '바람난 가족' '여배우들' 등 17편의 출연작을 소개한다.

KBS 1TV는 29일 밤 10시 다큐멘터리 '다큐인사이트'를 통해 윤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미나리'에서 그의 딸로 출연한 한예리를 비롯해 김고은·노희경 작가 등 동료 배우들과 작가·감독·제작자 11명의 윤여정에 관한 인터뷰를 담는다. 1966년 TBC 공채 탤런트 3기로 데뷔한 이후 현재까지 출연한 영화 36편과 100여편의 드라마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제작진은 "TV 속 여성 캐릭터의 변화를 이끈 윤여정의 어제와 오늘을 복기할 것"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웨이브는 'THE:윤여정' 기획전을 통해 '계춘할망' '돈의 맛' '꽃피는 봄이 오면' '죽여주는 여자' '찬실이는 복도 많지' 등 출연작을 한 데 묶어 공개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윤여정 어떤 혜택 받나?

공식적인 수상 상금은 '0원' 2억3000만원 스웨그백 특전

'0원+∝!'

물질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 단돈 48만원(500달러)가량의 제작비가 들어간 트로피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상징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역사적 의미는 새롭고도 크다.

윤여정이 26일(한국시간)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거머쥔 오스카 트로피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다. 수상자(작)의 이름과 제목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주최 측의 노력 때문이다.

오스카 트로피는 배우·감독·프로듀서·기술스태프·작가 등 영화 제작의 주역을 상징하는 5개 바퀴살로 구성된 필름 릴 모양의 지름 13.3cm 받침대와 그 위에 중세기사가 장검을 든 모양의 합금 조형물을 얹은 34.3cm 높이로 제작된다. 중세기사의 형상은 멕시코 배우 에밀리오 페르난데즈를 모티브삼았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의 도서관 사서 마거릿 헤릭이 1931년 이를 보고 삼촌 오스카를 닮았다고 말한 데서 명칭을 얻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윤여정은 이 트로피와 함께 상금도 받을까? 상금은 '0원'이다. 대신 수억원대의 '특전'을 받는다.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아카데미 각 수상자에게는 약 2억3000만원(21만5000달러)의 '스웨그 백'이 주어진다. 내용물은 수억원대에 달하는 가치를 지녔으며 구성은 해마다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 등은 8만 달러짜리 럭셔리 크루즈 여행권을 포함해 순금 펜, 다이아몬드 목걸이, 현관문 제작 이용권 등은 물론 '인생 코치' 전화 통화권 등 기발한 발상을 담은 선물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여정은 여기에 더해 배우라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모델, 영화 홍보 등에서 오스카 수상자로서 '프리미엄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영화 미나리는?

정이삭 감독 어릴적 경험 녹여 브래드피트가 제작한 미국영화

영화 '미나리' 포스터

영화 '미나리'의 정이삭 감독은 자신의 어릴 적 경험을 토대로, 1980년대 희망을 좇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농장을 꿈꾸는 한인가족의 이야기를 그렸다. 스티븐 연이 가장 역할을, 한예리가 아내 역을 각각 연기하며 실제 미국 한인가정의 아이들인 아역 앨런 김·노엘 조와 극중 가족을 꾸렸다. 여기에 한예리의 어머니 역으로 윤여정이 한국적 정서를 담아내는 설정의 연기를 펼쳤다.

'미나리'는 이 같은 제작진과 출연진 구성으로 한국영화라는 '오해'를 받는다. 하지만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가 이끄는 제작사 플랜B가 투자·제작하고, 현지 배급사 A24가 배급한 '순수 미국영화'이다. 스티븐 연도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려 제작비 20억원의 일부를 투자받기 위해 발로 뛰었다. 한국 수입배급사는 판씨네마로, 3월3일 국내 개봉해 이달 26일 현재까지 94만여 관객을 불러 모았다.

제목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질긴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한국 식물 미나리에서 따왔다. 농장을 일궈가며 좌절하고 쓰러지면서도 가족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이민자의 삶을 상징한다. 윤여정은 심장이 약한 손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듯 극중 이렇게 말했다.

"미나리는 잡초처럼 아무 데서나 막 자라니까 누구든지 다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든 가난하든. 김치에 넣어 먹고, 찌개에 넣어 먹고. 아플 때 약도 되고. 미나리는 원더풀(Wonderful), 원더풀이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